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진로 전환기 직장인의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의 적용 연구

김 신 회¹⁾

양 은 주²⁾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진로 전환에 놓인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주의 진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진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구성주의 진로 상담은 변화하는 21세기 직업환경에 진로 적응성을 키우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한 상담으로, Savickas(2011)의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이 대표적이다. 생애 설계 상담은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가 핵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6명의 성인 근로자이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상담은 총 2회기로 진행되었는데, 1회기에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의 상담을 받았고 2회기에는 1회기 상담을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인생초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내러티브 평가 도구인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상담 사전 사후에 작성하였다. 상담 결과, 여섯 명 중 한 명만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정체'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다섯 명의 참여자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의 내러티브 변화를 보였다. 끝으로 진로 전환에 직면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를 사용한 새로운 진로상담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 진로 전환, 성인 진로 상담, 진로 구성 상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미래진로자서전

1)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yange@korea.ac.kr)

I. 서론

현대사회의 근로 환경은 한번 정해진 직업을 평생 직업 또는 평생직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 인크루트가 직장인 300여 명에게 이직 여부에 관해 물어본 결과, 전체의 75%가 '올해 상반기 이직을 위해 입사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차별로 보니 3~5년 차는 84%, 6~9년 차 직장인은 90% 가까이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 지원 서류를 내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7. 4. 14. 일자). 이렇게 평생 직장개념이 사라진 근로 환경에서 '진로 전환'이란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진로 전환은 주로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나, 급변하는 21세기 진로 환경에서는 성인 근로자로 확대되고 있다. 탁진국, 이은혜, 임그린, 정일진(2013)의 연구에서 은퇴에 관한 고민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20대 순이었다. 40대에게서 나타난 은퇴에 대한 고민은 직업에서의 은퇴가 아닌 전직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이직률을 보면 성인 근로자의 진로 전환 문제가 IT분야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이직률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직의 이직률은 25.2%로 같은 분야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직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6%)

보다 2배,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5.9%)보다는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15). 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양상으로 LinkedIn의 2018년 분야별 이직률 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산업(소프트웨어)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분야 내에서는 컴퓨터 게임이 15.5%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직률 1위를 차지했다(LinkedIn, 2018. 3. 15). 요약하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직군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타 직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게 있어 진로 전환이 성인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인기의 진로 전환에 대한 진로 상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적으로 차별화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성인 진로상담 모형은 제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로상담 모형은 개인의 특성과 일의 세계를 매칭해주는 특성-요인모형으로, 심리검사와 직업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성-요인모형에 기반을 둔 진로상담이 가장 활성화 된 이유는 이 모형이 단기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안창규, 1996; 위크넷, n. d.)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요인모형에 기반한 진로상담을 진로 전환기의 성인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특성-요인모형은 자기 이해의 증진과 직업정보의 탐색,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합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Savickas, 2012) 자기나 직업 세

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첫 직업 선택의 과업에 직면하는 초기성인기의 개인들에게 더 적절할 수 있다(Maree & Twigge, 2016). 반면 성인 근로자들의 경우 다양한 진로 관련 경험의 탐색과 몰입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 흥미나 관심 분야의 직업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진로 구성 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Savickas, 2001, 2005, 2011)은 이러한 성인기의 진로상담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대안적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 구성 이론은 자기와 직업의 합리적 매칭을 목표로 특성-요인모형과 구분되게, 의미 부여를 통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을 주요 상담목표로 보고 있다. 진로 구성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진로 흥미뿐 아니라 인생의 주제를 찾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 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을 함양한다. 특히 진로 구성 이론에서는 내러티브가 개인들이 새로운 사건으로 이끌어 의미체계 안으로 흡수하게 만들므로 개인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허용하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Savickas, 2011). Savickas 등 (2009)은 새로운 진로 상담 모형의 개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이론은 개인 성격의 안정성에 대한 가정을 두고 있는 동시에 한정된 조직에서의 일자리 확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변화와 같은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진로의 단

계의 고정된 순서로 개념화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이론에서 등장하는 진로 정체성, 진로 계획, 진로 발달 및 진로 단계들은 환경과 사람들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질 때 작업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므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적합하지만,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는 기능적이지 않다. 즉 인간의 행동에는 환경에 대한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된 개인의 특성이 있더라도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로 구성 이론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된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areer Story Interview, CSI)라는 상담기법을 활용하며(Savickas, 2011), 역할모형(Role model), 잡지(Megazine), 좋아하는 이야기(Favorite Story), 격언(Mottos), 초기기억(Early Recollection)이라는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상담자는 이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상담을 찾는 이유(주 호소문제)와 연결시키고, 패턴과 캐릭터를 선명히 그리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스토리를 바꾸어 말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담자는 진로와 관련된 삶의 주제를 강조하고 직업적 플롯을 확장하는 사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은 기본적으로 단회기이나 1회기에서 4회기 정도까지 다양한 회기에 걸쳐 진행이 가능하다. 단회 상담의 경우 회기의 반은 인터뷰에, 나머지

받은 내러티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할애할 수 있으며, 1회기 이상이 가능하다면, 이 두 유형의 작업을 각기 다른 회기로 나누어 진행한다(Savickas, 2011).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1회기(Di Fabio, 2016), 2회기(Reh fuss, Corso, Galvin, & Wykes, 2011), 3회기(유우경, 유현실, 2018; Maree, 2015; Cardoso & Sales, 2019), 5회기 이내(정문희, 2016; Reh fuss, Cosio, & Del Corso, 2011)와 같이 단기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6회기 진행한 상담도 있었으나 총 상담 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진행 시간만 비교해보면 단기 상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Obi, 2015).

해외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사용한 생애 설계 상담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상담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률이 가장 높은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분야의 근로자 중 진로 전환위기에 놓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구성 이론에 근거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상담 효과 검증에 주로 사용되는 사전-사후 검증설계(최윤정, 이지은, 2014)를 이용하여, 총 2회기의 상담 전후의 내러티브 변화를 미래 진로 자서전(Future Career Autobiography; FCA)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생애 설계 상담과 같은 구성주의 상담은 상담의 효과로 나타나는 의미 부여의 변화가 내러티브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가장 적절하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상담 효과로서 내러

티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이다(Cardoso & Sales, 2019). 질적 평가 도구인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 대해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성은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상담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적이고 주관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양적 평가 도구보다는 질적인 평가도구가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으며(고홍월, 남상인, 손은령, 2013; Reh fuss, 2009; Taber, Hartung, Briddick, & Reh fuss, 2011),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Reh fuss & Di Fabio, 2012; Storlie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내러티브로 상담 효과를 평가하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사용하여 상담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진로 구성 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의 진로 발달은 개인들이 변화무쌍한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에서의 적응 능력(adaptability), 의미 부여를 활용하여 선택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를 구체화 능력, 결정능력을 향상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요구한다(Savickas, 2011). 진로 구성 이론은 이러한 변화하는 직업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진로발달이론이다. 진로 구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미래의 목표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진로를 “구성(construct)”한다고 본다(Savickas, 2005). 진로 구성 이론은 기존 진로 이론들의 개념들을 새로운 방식으

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진로 구성 이론은 Super의 진로발달이론(1957)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생애발달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기존 진로발달이론이 발달단계나 성숙(maturity)을 강조한 반면 진로 구성 이론은 개인이 급변하는 환경적 요구에 어떻게 적응(adaptability)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진로 구성 이론도 Holland 이론의 진로 성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나 진단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활용하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진로 구성 이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내러티브 상담에서의 중심은 개인의 이야기에 있으며 이를 이용한 상담은 계속해서 증가, 발전하고 있다(Rehfuß, 2015). 그러므로 내러티브의 초점은 경력을 쌓거나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더 넓어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Di Fabio & Maree, 2012). Savickas의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은 내러티브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진로상담 모형이다. 생애 설계 상담은 사회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기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체성 형성 촉진함으로써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짧은 인터뷰로 상담을 시작한다. 이 질문들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진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있다. 인터뷰가 끝나면 상담자는 이 인터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체(deconstruction)한 후, 내담자를 만나 공동구성

(co-construction)으로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인생 초상화(life portrait)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계획을 짜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한다(Savickas, 2012). Savickas는 생애 설계 상담에서 짧은 이야기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구조화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발전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생 이야기를 이해하고 내담자와 함께 공동 구성(co-construct)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Di Fabio & Maree, 2012). 즉 내담자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의 질문을 통해 역할모델, 좋아하는 잡지, 좋아하는 이야기, 인생의 모토(격언), 초기 기억을 묻는 말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인생의 주제와 진로 주제를 찾아 나간다. 동시에 상담자와 함께 내러티브를 활용하며 인생 주제와 진로 주제를 공동구성한다(Savickas, 2011).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개발한 Savickas(1995b)는 우유부단함이 문제인 내담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상담 후 내러티브에서 진로 선택의 명확성과 진로 결정 능력의 향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사례 연구(Taber, et al, 2011) 역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삶의 상황과 방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하며,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가 과거 객관적인 평가 방식의 상담처럼 분명한

행동을 제시해 주진 않지만,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직업적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사례 연구가 아닌 여러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 연구들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Rehfuess, Corso, Galvin과 Wykes(2011)는 20에서 55세 사이의 성인 1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사용한 2회기의 상담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미래 진로 자서전(FCA)로 검증하였다. 내담자들은 첫 번째 회기에서 사전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작성하고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상담을 받았고 두 번째 회기에서는 지난 회기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탐색한 삶의 주제와 성공 공식(success formula)을 상담자와 함께 구성하고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작성하였다. 2주 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상담에 대한 경험과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에 대해 회상하게 하며 추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 자신감, 방향감, 확신, 용기 등이 증가하였고 직업적 내러티브는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이 자기 인식과 같은 개인적인 발달과 함께 직장에서의 사회정의 증진의 중요성 인식과 같은 도덕적 발달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ee & Twigge, 2016).

이러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의 효과는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i Fabio와 Maree(2012)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진로 전환기에 놓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38명의 성인은 통제집단의 34명에 비해 진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정보의 부족 및 정보 불일치)이 감소하고,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상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동기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하고 새로운 권한과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외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정문희의 석사 논문과 유우경, 유현실(2018)의 연구가 있다. 정문희 연구(2016)는 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회기에 걸쳐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활용 진로상담을 하고 사례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자신의 진로 주제를 찾고 진로 주제로부터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직업적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우경, 유현실(2018)의 연구에서는 성인 7명을 대상으로 3회기의 진로 구성상담을 실시한 후 심층면담을 통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작용/ 상호작용을 전략의 결과만 살펴보면, ‘자기 이해가 확장되어 감’, ‘자궁심이 높아짐’, ‘진로 목표가 명료해 짐’, ‘생애초상화에 따른 삶을 지향해 나감’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에 대한 효과성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중단연구(Perdrix, Stauffer, Masdonati, Massoudi, & Rossier, 2012; Maree, 2016)도 시행되는 등 해외에서는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있

으나, 국내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가 국내의 진로 전환기의 성인에게 유용할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내러티브의 평가

포스트모더니즘 진로 발달 접근(postmodern career development approach)에서는 개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관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내러티브라고 상정한다(Savickas, 2012). 내러티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야기 변화인데, 이는 내러티브가 곧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Clandinin & Connelly, 1998; Cochran, 1997; Sarbin, 1986; Savickas, 2005).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진로 상담의 개입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내러티브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상담 이후 변화된 내러티브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활용 진로상담의 구성주의적 접근에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의 접근은 관계적 과정과 해석적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현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맥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Gysbers, 2006). 양적 측정 도구는 이러한 맥락적이고 주관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홍월 등, 2013; Rehfsuss, 2009; Taber et al, 2011).

그러므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

한 구성주의적 진로상담 효과 평가에 있어서 내러티브의 질적 평가가 가장 적절한 도구로 사료되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효과 검증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국내에서 진행된 질적 진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김향란, 유승래, 손은령, 2017), 상담 효과의 평가를 위한 내러티브 변화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국외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활용 진로상담의 효과 연구들도 상담의 효과여부를 내러티브의 변화로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여 주제적 분석 방법(Maree, 2015), 심리치료 기법 활용(Cardoso, Gonçalves, Duarte, Silva, & Alves, 2016), 근거 이론(유우경, 유현실, 2018; Storlie, Hilton, Duenyas, Archer, & Glavin, 2018)등의 상담 이후에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사용했으나, 상담 전후의 내러티브 변화를 통해 상담의 변화를 평가하지는 않았다(Rehfsuss, 2015).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구 중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러티브 방식의 평가 도구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유일한 도구이다(Rehfsuss, 2009, Di Fabio, 2016; Cardoso & Sales, 2019).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상담 전후에 짧은 내러티브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직업 및 전반적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 또는 변화 부족을 평가한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연구자나 상담자에게는 상담 효과를 평가 도구로 활용되며, 동시에 참여자나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동기, 가치, 목표 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된다(Rehfsuss, 2009; Rehfsuss, et al.,

2011).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삶과 직업에 대해서 짧은 글을 쓰도록 지시하고 삶에 대해서는 성취(achievement), 관계(relationships), 안전(security), 경험적(experiential)인 것 중 그 주제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 분류한다. 반면 직업적인 부분은 사전 사후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화에 따라 다음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한다(Reh fuss, 2009); (1) 일반적인 분야나, 일반적인 욕구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인 것으로의 변화, (2) 일반적인 흥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3) “직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던 것에서 자세한 설명으로의 변화, (4) 무시(disregard)하던 것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 (5) 희미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화, (6) 주춤하던 것에서 희망으로의 변화, (7)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8) 개입 전후에 변화가 없는 ‘정체’.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최근 개발되어 연구가 축적되어가는 과정이나, 이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상담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타당한 도구임을 지지하고 있다(Reh fuss & Di Fabio, 2012; Storlie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도구를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구성주의적 진로상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군인 게임프로그램 개발 회사 직원 중 진로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을 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생애 설계 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한 시작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국내 진로 전환기의 성인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문제. 국내 진로 전환을 고려하는 성인들에게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이 효과적인가? 구체적으로 미래 진로 자서전(FCA) 방법을 활용한 내러티브의 상담 전후에 내러티브의 변화가 관찰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게임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6명이었다. 참여자는 남성 2명(33.3%), 여성 4명(66.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2.67세($SD=3.46$)였다(표 1). 학력 분포는 고졸 1명, 대졸 3명, 대학원졸 2명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담당 업무는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다양하였다. 업무경력은 3년 이상으로 현재 업무에 대해 능숙한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었다. 학교 다닐 때의 전공과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를 보면, 고졸 졸업자인 1명만 전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나이	37세	34세	32세	35세	26세	32세
성별	여	남	여	남	여	여
학력	대학원 졸	고졸	대졸	대졸	대졸	대학원 졸
결혼 여부	기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미혼
전공과 업무 일치도	일치	-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직급/ 직책	차장/팀원	대리/ 팀원	과장/ 팀원	차장/팀원	대리/팀원	과장/팀원
직무 구분	개발	개발	기타	개발	경영지원	경영지원
현재 업무경력	9.5년	6년	11년	10년	3년	9년

공과 현재 업무와 ‘불일치하다’라고 보고하였고 나머지 5명은 대학 때의 전공과 현재 업무가 ‘일치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직급은 대리부터 차장까지 다양하나, 직책은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 팀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현재 진로 전환 여부에 대한 진로 고민이 있는 사람들로 진로상담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음은 연구참여자 6명의 상담 신청 동기 및 주 호소 문제에 대한 요약이다.

참여자 1: 게임 기획 업무 10년 차 여자 차장으로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게임기획이 맞지 않다고 늘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업무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하고 있던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진급에 누락이 되었고 주어진 업무가 줄어들면서 게임 개발 업무를 계속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2: 게임 개발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대리로 게임회사에 입사하기 전, 연예인 매니저, 요리사 등 게임과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뒤늦게 게임 개발을 하게 되어 나이에 비해 늦게 입사하였고, 이로 인해 승진이 늦은 편이라고 함.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초에 팀이 두 개로 나뉘면서 업무 평가를 안 좋게 받아서 언제 해고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많은 나이로 인해 해고 이후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 불안감 때문임. 현재 새로운 팀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격려 받고 있지만, 게임회사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나이 먹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좌절, 불안함이 있음. 성격적으로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대인관계나 상사에게 비위 맞추는 것을 하지 못하여,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해서 관리자가 못되고 계속 팀원으로 있다가 해고될 불안감이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하였음.

참여자 3: 글쓰는 업무 경력은 11년이나, 현재 게임 개발 회사에 근무한 지는 1년 반 되었음. 현재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아니나 현재 회사에 오기까지 2년마다 이직을 하였던 터라, 새로운 직장에서의 제안이 오면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임. 과거에 하던 업무는 명확한 직업명이 있었으나 현재 직장에서의 하고 있는 온라인 글쓰기 업무는 기존에 존재하던 직업군이 아니어서 명확한 직업명이 없음. 이로 인해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음. 현재 업무가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업무 분야가 새로 만들어진 분야이다 보니 언제까지 존속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로 인해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4: 프로그램 개발을 한 지 10년째 된 차장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자주 변하는 최신 기술에 대처할 자신감이 저하되고 있음. 결혼 이전에는 자기 계발에 시간 투자가 가능하여 기술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으나, 결혼 이후 육아 등을 병행하다 보니 자기 계발에 대한 시간 부족과 심리적 압박감이 큼. 이러한 문제로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5: 경영학과 재학 시절 회계 분야는 아니라고 확신하여 입사원서 지원시, 회계 분야를 제외한 경영학과생이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에 입사원서를 냈고 현재 회사에만 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음. 어린 시절부터 딱히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지냈으나 책임감, 의무감은 늘 있었기 때문에 성과는 좋은 편이었음. 또한 맏이라는 위치로 인해 리더십도 있는 편이었음. 입사 이후 업무가 맞지 않으나

그동안 진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지 못하여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심하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6: 결혼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음. 20대에는 계획한 인생대로 성취하며 지냈는데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될 사람과 상의를 해서 진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맞춰주게 되어 우울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음. 결혼 이후에도 결혼 전처럼 목표 같은 것들이 하나의 큰 줄기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큰 그림이 잡혀있지 않아 상담 신청을 함.

2. 연구 절차

연구참여자는 게임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사내 인트라넷에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연구참여를 희망한다고 전자 우편을 보내온 6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내 상담실에서 생애 설계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은 총 2회기의 개인 상담으로 시행되었으며 회기당 시간은 1시간 30분~ 2시간이었다. 생애 설계 상담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인터뷰로 시작하였다. 이후 상담자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인터뷰 이야기를 해체(deconstruction)하고 다시 내담자와 함께 공동구성(co-construction)하며 인생초상화(life portrait), 즉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1회기에 연구 목적과 녹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수집하였다. 2회기는 약 1주일 후에 진행되었으며, 1회기의 내러티브에 대한 재구성 작업인 생애 초상화(life portrait) 작업이 이루어졌다. 상담 효과 평정을 위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1회기 연구 동의 후, 2회기 상담 종료 후 작성하였다. Savickas(2011)는 내담자와의 만남이 한 번이라면 상담의 반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에 나머지 반은 상담에 할애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1회기 이상이 가능하다면 인터뷰와 상담을 나누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회기에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를 진행하고 2회기에서 재구성된 스토리를 내담자에게 이야기하며 3회기와 4회기에서 상담을 완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근무시간에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및 기존 연구들의 짧은 회기수(Rehfuß et al., 2011; Maree, 2015; Di Fabio, 2016; Cardoso & Sales, 2019)를 고려하여 2회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상담의 진행은 본 연구의 제1저자가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구자는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소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취득 후 성인 상담 경력 10년 및 기업상담 경력 3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다음은 생애 설계 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와 생애초상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Career Story

Interview)

Savickas(2011)에 의하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는 진로 구성주의 입장에서 상담할 때 사용하는 질문들로 진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5가지 질문을 시도한다.

질문 1. 역할모델(role model). 역할모델에 대한 질문은 자기 개념(self-concept)에 대한 질문이다. 자기 개념은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알리고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다(Savickas, 2011).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어린 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구체화하면서 자신들의 자기 개념(self-concept)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물론, 내담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서 내담자가 모델이 했던 일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면, 상담자는 구체적으로 모델의 성격/인물(character)에 관해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가령 “당신이 어렸을 때 이 모델을 어떻게 봤는지?”, “처음에 이 모델에게 끌렸던 점에 대해 기억해보세요.”라고 요구한다. 또는 “이 사람과 당신이 어떻게 비슷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질문 2. 좋아하는 잡지, TV 프로그램, 웹사이트. 두 번째 질문은 직업적 흥미를 다룬다. 기존에는 이를 다룰 때 검사지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발견했다. 가령,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조사자들은 범피자들의 행동이 남겨진 거주지에서 단서를 찾는 것처럼 진로 구성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찾는 잡지

나 책,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내담자의 흥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단서로 여기고 이를 통해 직업적 흥미를 다룬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좋아하는 잡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명백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담자가 몇 개의 출판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질문 3. 좋아하는 이야기. 세 번째 질문은 스크립트를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을 처리하는 것을 다룬다. 즉 그와 같은 환경에서 내담자가 개인과 환경 사이에 연결된 논리적인 것을 다룬다. 이를 위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즐거움을 말해주세요”와 같은 질문으로 요청하고 내담자가 말하는 스크립트가 어떻게 자신과 상황을 통합하는지 염두에 두며 듣는다.

질문 4. 좌우명, 격언. 네 번째 질문은 내담자들이 자신에게 주는 충고(advice)에 관한 질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명언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요청한다. 만일 내담자가 좌우명이나 격언이 없다면, 상담자는 현재 순간에 그들이 들었던 명언을 다시 말해보거나 명언을 만들어보라고 요청하여 내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직관적 이해를 끌어낸다.

질문 5. 초기 기억. 마지막 질문에서 상담자들은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에 3가지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의 삶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 세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요청하고 내담자가 응답하면 각각의 스토리의 본질을 잡아낼 헤드라인을 달아달라고 요청한다.

생애 초상화(life portrait) 작업

생애 초상화 작업은 작은 스토리들을 커다란 내러티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Savickas, 2011) 자서전과 유사하지만, 더 간결하고 집중적이며 예리하게 그려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Savickas, 2010). 이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현재의 진로 전환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 위치를 포괄적인 관점을 보게 하는 작업이다(Savickas, 2011). 즉 이것은 진로 스토리 인터뷰 이후 작은 이야기로 쪼개어진 이야기들을 조금 더 큰 이야기로 상담자와 함께 공동구성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Savickas가 제시한 기본적인 틀에 내담자들이 진로 전환과 자기 이해된 부분에 대해 직접 써서 상담 이후 재구성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상담 효과 평가 도구 및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상담 효과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으로 평가하였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러티브 방식의 평가 도구로 직업과 삶의 영역에 대한 내러티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질적 도구이다(Rehfsuss, 2009). 질문의 초점은 미래의 삶과 진로에 관련된 목표와 바람에 대한 개인의 짧은 내러티브로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삶에서 어떤 위치에,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관해 짧은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Reh fuss, 2009; Reh fuss & Di Fabio, 2012). 짧은 글의 분량은 4~5문장을 쓰도록 장려하며 글을 완료하는 데에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한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개발한 논문(Reh fuss, 2009)에서는 삶에 대해서 성취(achievement), 관계(relationships), 안전(security), 경험적인 것(experiential) 중 삶의 주제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반면 직업적인 부분은 사전 사후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화에 따라 다음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상담 이후 효과를 보기 위한 변화 여부가 초점이므로 직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직업적인 면에 대한 참여자별 사전 및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하였다(Reh fuss, 2009). 연구진과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평정자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내러티브들에 대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하였다. 평정은 사전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러티브와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러티브에서 사용된 단어, 구절, 기술을 비교하고 이에 비추어 가능한 8개의 변화 주제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두 독립 평정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평정자들이 토의한 후 재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정 결과에 대해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평정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연구진은 진로상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교수 1인과 본 연구에서 진로상담을 실시한 상담심리전문가 1인이었으며, 독립 평정을 실시

한 외부 평정자는 임상심리전문가였다. 감사는 기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심리전문가였다. 모든 평정자와 감사자는 Reh fuss(2009, 2012, 2015)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평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학습한 후 자료를 검토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상담효과의 분석: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이용한 상담평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시작하기 전과 이후에 참여자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삶에서 어떤 위치에,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관해 4~5줄 분량의 짧은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참가자의 사전 사후에 기록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변화한 내용을 보며 밑줄 친 내용을 근거로 변화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2. 미래 진로 자서전(FCA) 변화 여부에 따른 생애 설계 상담 내용의 특징

여섯 사례의 상담 이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의 변화를 보인 참여자는 다섯 명이며, 변화의 내용과 변화를 보이지 않은 참여자는 한 명이었다. 생애 설계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에 대한 해석은 Savickas의 생애 설계 상담 매뉴얼(2015)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와 공유한 후, 인생 초상화 작업에 통합적

표 2. 참여자들의 미래 진로 자서전 사전-사후 내용 결과

	사전	사후
참여자 1	‘막연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그리거나 만들기를 어릴 적부터 취미로 하고 있으며 ‘생활의 운용이 자유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회적인 명예나 야망 같은 것도 사실 좀 있는 편이라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삶의 모습이라 한다면, 하루의 반은 일로 바쁘고 반은 가족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다. 다만 5년 후에는 직업 변경도 불사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있길 바란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위치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를 바란다.
변화 양상 분류	(하고 싶은 일, 생활의 운용이 자유로운 일,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 등) 희미한 것에서 (회사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 2	시간이나 일에 쫓겨 살지 않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삶. 풍요롭지 않아도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취미를 같이 나누며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삶. 직업적으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글 쓰는 직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너무 일에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역시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
변화 양상 분류	(성취감, 글쓰기라는 특정한 직업에) 고정된 것에서 (온전히 나를 위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 3	조직에 계속 속해 있다면 좋은 선배가 되고 싶고,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보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확신을 하고 때때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나 또한 타인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목표.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으면.
변화 양상 분류	(조직에 남을지 떠날지만을 고려하며) 무시하던 것에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 4	개발자로서 자신감을 더 느끼고 싶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정에서도 평안한 삶을 원하고 대출도 다 갚고 아기도 건강하게 크고 와이프도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도 종종 만나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회사에서 굳이 일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하고 싶은 일(내가 개발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살고 싶다.	5년 후, 나 스스로 보내는 시간이 생겼다. 나는 나만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 최근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경제 분야는 어렵지만 흥미롭다.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한다. 아내는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을 돌보고 있다. 밤 8시가 지나 가족이 함께 산책하러 간다. 산책하며 그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게 한다. 어제 만난 친구의 근황을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워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뉴스를 보며, 사회경제의 이슈들을 확인한다. 뉴스가 끝나고 아이를 재울 준비를 한다. 아이의 투정을 들으며 억지로 재운다. 내일 회사에서 처리할 일들이 생각나 간단히 인터넷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테스트해본다. 확인 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표 2. 참여자들의 미래 진로 자서전 사전-사후 내용 결과

(계속)

사전		사후	
변화 양상 분류	정체		
참여자 5	해외에서 생활하고 싶다. <u>work & balance</u>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 (eg. 통역사, 국제회의 전문가, 심리상담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 (물론 그 목표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일 거다). <u>회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u>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싶고 아마도 <u>통역사 또는 국제회의 전문가</u>로 활동하고 있을 것 같다.	
변화 양상 분류	(work & balance를 맞추는 일, 전문성이라는) 일반적인 것에서 (통역사, 국제회의 전문가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탐색		
참여자6	정신적으로 쫓기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희망 사항들을 실천하는 시기였으면 함.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보다 안정적인 재정과 40대 엄마, 아내, 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함. 직업적으로는 <u>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u> 또는 <u>개인 사업자</u>를 하고 싶음	결혼한 후 서로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불안을 털어놓고 맥주 한 잔으로 끝내고 훌가분해질 수 있는 배우자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심적 여유를 가진 그런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면 좋겠다. 직업적으로는 한 가지에 얽매어서 수동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금전적, 다른 여건 상황이 가능하다면, <u>개인 사업자</u>도 도전해보고 싶긴 하다. <u>디자인 쪽 인테리어나 소품 등을 취급하는 일</u>을 하기 위해 밑 작업을 해놓고 싶다.	
변화 양상 분류	(전공이라는 흥미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흥미에서 (디자인, 인테리어라는 구체적인 분야)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으로 반영하였다. 다음은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분류에 따라 각 참여자를 분류한 후 상담에서 다루어졌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 및 인생 초상화의 내용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변화를 보인 참여자들의 특징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상담 이후,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보인 사례는 참여자2 였다. 참여자2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직업적으로 글쓰기라는 고정된 직업만을 고려했던 것에서 상담 후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대답하는 등 직업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로 변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참여자2는 학력이 고졸로 참여자 중 현재 직업을 갖기까지 4~5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는 등 직업변화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다. 참여자2의 직업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밤에 요리학원을 다니며 한식, 양식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대에 취사병으로 입대하였다. 그러나 군대에서 요리하면서 요리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 재대 이후도 미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연극 분야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로드매니저, 부동산 회사, 감정평가사 준

비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게임 프로그래머의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직업인 게임 개발자가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2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서 ‘에디슨’, ‘장영실’이라고 대답하며 어려서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발명가가 되고 싶어서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흥미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게임 잡지를 보는 것, 스포츠 게임으로 시작하게 된 후 관심 두게 된 축구에 대한 정보를 본다고 응답하였다. 좋아하는 책에 대한 스토리로는 ‘쇼생크탈출’을 언급하며 일상을 탈출해서 한적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꼈다며 줄거리를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인 격언, 조언에 대한 질문에서 참여자2는 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회사로 받은 상처와 그동안에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과정, 우울증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고 회사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마지막 초기 기억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의 물감을 흠뻑했던 기억과 목걸이에 도장을 찍기 위해 혼자 새벽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갔던 기억, 뒷산에서 무서운 아저씨를 만났지만 책임감으로 동생에게 엄마를 데려오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초기 기억을 통해 참여자2는 불안감, 걱정이란 감정을 경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망치고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역할모델도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발명가들을 선택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쇼생크탈출도 불안감과 걱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참여자2의 문제 해결방식

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진로 주제에도 연결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직업으로 바꾸는 패턴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상담 전 내러티브에서 지금 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한 것 역시 부정적 감정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이자 진로 주제인 직업 바꾸기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담 이후, 참여자2는 현재 진로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버티며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이 생애 초상화 작업에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다. 이는 내게 불안한, 안정적이지 않은 감정을 기억나게 한다. 자라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도망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었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힘든 걸 버티고 미래를 준비해라이다.

무시(disregard)하던 것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3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이전에는 조직에 남을지 떠날지에만 몰입하며 그 외 다른 면에 대해서는 무시하던 것에서 상담 후 현재 하는 일로 동일한 방향을 정하였다. 참여자3의 커리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의 특징은 각 질문마다 동일

하게 나타나는 ‘결핍에 대한 보완’이라는 패턴이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서 대답했던 인물들을 보면 2년마다 이직을 했던 자신과는 달리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로 이전에 살던 동네의 소상공인들, 교사로 퇴직하신 엄마, 참여자³이 고교 시절 어떤 과목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던 친구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흥미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한국인의 밥상’, ‘맛있는 녀석들과 같은 먹는 방송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역시 혼자 살기 때문에 먹는 방송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줄거리에 관한 질문에서도 ‘굿윌헌팅’을 언급하며 인간관계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타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한다고 했다. 네 번째 격언에 대한 질문도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고 말한 점도 어려서부터 2등 하면 1등을 요구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어린 시절의 기억 세 가지는 할머니와 밥 먹고 놀러 다니던 좋은 기억과 오빠와 매일 싸우고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해서 엄마 또는 다른 어른들에게 하소연했던 기억, 가족 모두 갔던 정육점에서 오빠가 손을 칼에 갖다 대어 응급실에 갔던 사건을 기억하였다.

참여자³의 초기 기억 두 가지는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억으로 대부분 ‘받는 사랑’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결핍에 대한 보상행동이 직업에도 이어져 현재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제안이 이러한 결핍을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직’이라는 대처 행동으로 진로 패턴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직업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지만, 업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결핍이 있는 상태로 여겨지며 이러한 결핍을 보완해줄 다른 직장의 제안이 있으면 이직이라는 진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Savickas(2011)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 55세에 직업 전환을 위해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 가지 초기 기억 중 마지막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잠재적 해법’으로 해석하였다. 즉 참여자³의 경우에서 마지막 응급실 사건은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 생활 중 갑작스러운 제안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 나타난 변화는 상담 이후 조직에 있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아닌지에만 초점 맞춰져 있던 모습에서 현재 하는 글쓰기 업무에 대한 굳은 확신이 생겼고,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타인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확장된 것으로 변화였다. 다음은 인생 초상화 작업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일부이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이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이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다.....(중략).....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번민

에 시달리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자이다.

희미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1은 현재 하는 업무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진급에 누락되고 업무가 줄어든 위기 상태에서 진로 전환을 고민하며 진로 상담을 신청한 참여자이다. 참여자 1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막연하게....하고 싶다. 하지만 (중략)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희미한 상태에서, 상담 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확신 및 “....모습이 되어있길 바란다”며 좀 더 분명한 초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변했다. 참여자1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을 살펴보면, 롤 모델에 대해 희생정신과 똑똑한 판단이 두드러진 이순신 장군,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반고호, 퀴리부인을 언급했다. 두 번째 질문인 좋아하는 잡지, TV 프로그램, 웹사이트 관련 질문에서 그림 그리기, 만들기(바느질)와 같은 분야에 흥미가 뚜렷함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알랭 드 보통의 ‘우리도 사랑일까’를 언급하며 추한 모습까지 사랑한 모습에 대해 묘사하였다. 좌우명 및 격언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에서의 결벽, 업무에서의 정직, 사람들 사이에서의 침묵이라고 언급하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리,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기 세 가지 기억을 살펴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와 집 앞의 산에 자주 올라가서 도시락 먹던 기억,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는 시간에 옆의 아이가 칭찬

을 받으면 더 잘 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미술 시간에 대한 기억, 미술 실력도 공부 실력도 비슷했던 친구와의 즐거운 놀이 기억을 떠올렸다. 참여자1은 진로를 선택할 때 칭찬을 받기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하기,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며 걱정과 불안을 해결해 온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좋아하는 행동(그림 그리기)이 있지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다수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과 희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참여자1의 진로 주제로 보인다. 참여자1의 흥미 적성 분야는 어린 시절 경험에도 나타났듯이 그림 그리기 또는 바느질과 같은 예술 분야임이 시사된다. 우리도 사랑일까처럼 내담자의 인생 이야기는 특이한 상황에서조차도 불안을 감추며 일관된 모습으로 살고자 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담 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 언급한 내용 및 생애 초상화를 볼 때, 참여자1은 상담 이후에 자신의 욕구에 좀 더 초점 맞추고자 하는 태도가 좀 더 명확해졌고 당장은 회사에 있기로 결정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새로운 일을 택했을 때 지금만큼 잘할 수 있을까?이다. 이는 내게 성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의 감정을 기억나게 한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해도 좀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이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5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몇 개의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나열된 직업의 공통점 없이 전문직이라는 일반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담 후,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는 것, 통역사 또는 국제회의 전문가로 구체화 되었다. 참여자5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서 유관순이라고 대답하면서 여자 혼자 무엇인가 이뤄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세릴 샌드버그 라고 대답하며, 여성으로 뭔가 해내는... 성공한 여성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인 구독하고 있는 잡지나 TV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영경제 잡지는 봐야 해서 본 잡지이고 실제로는 보고 싶어서 본 것은 아니었어요”라며 경영 잡지의 보는 잡지는 없고 TV 프로그램 중 ‘김재동의 톡 투 유’를 자주 본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마음을 안정되게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보기 위해 본다고 설명했다.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이야기는 어바웃 타임을 언급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좋아하는 격언은 걱정이나 후회가 많으므로 ‘현재를 즐겨라’를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초기 기억을 보면 첫 번째, 삼천포에서 살 때 친구들과 학교 갔다 사탕 먹고 돌아오는 길에 혈액형이 같으면 같이 먹어도 된다는 말에 같

이 먹었는데 알고 있던 혈액형이 아니라서 엄마에게 엄청나게 물었던 이야기를 회상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기억은 시골 학교에서 글씨 잘 쓴다며 영수증에 이름 쓰는 일을 손가락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 마지막으로 용돈을 모아서 고심 끝에 구매한 지갑을 중학교 언니들에게 빼앗겼다가 치킨집, 슈퍼마켓 아저씨와 함께 끝까지 쫓아가 찾았던 기억을 언급하였다.

참여자5는 초기 기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로 주제는 내담자의 롤모델 및 어린 시절의 대처 행동에서 드러나듯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확인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여성상을 가진 모습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Savickas(2011)는 잡지, TV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홀랜드의 RIASEC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참여자5의 선호하는 장면은 기업형(E) 또는 사회형(S)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참여자5의 업무 부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이 혼자 인사평가 기준을 만드는 업무를 하므로 현재의 업무는 내담자의 적성과 맞지 않는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참여자5는 책임감과 적극성이 진로를 결정 지었던 핵심요인이므로 현재 맡겨진 업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현재 업무를 관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 이후에 작성한 생애 초상화 작업의 내러티브를 보면, 진로 주제 및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대된 상태로 책임감이라는 진로 패턴을 넘어 자신의 적성 분야를

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초점 맞추는 것으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후회 없는 선택이다. 이는 내게 걱정, 두려움, 막연함이라는 감정을 생각나게 한다.....(중략)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들을 좋아한다..... (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현재를 즐기자,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흥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6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의 일반적인 흥미 분야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상담 후 전공 중에서 인테리어 소품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일에 대해 결정 내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참여자6의 특징적인 면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신 사건이 진로 주제뿐 아니라 인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중요했던 경험으로 여겨진다. 참여자6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톨모델에서 자신의 가족과 고모 가족 모두를 챙기신 할머니, 새벽 3시에 기상한 후 산에 가서 책 한 권을 읽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교수님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디자인 잡지, 까사와 같은 일과 관련된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참여자6은 과거, 테드(TED)에서 일한 경험도 있지만 영어 공부를 놓지 않

기 위해서 테드도 고정적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그 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도 꼭 챙겨보는데 다른 요리프로그램과 달리 게스트들이 요청에 따라 15분 만에 요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좋아하는 영화는 ‘업’을 언급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둘이 늘 함께 있었는데 한 명이 사라지는 사건이 묘하게 와 닿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참여자6이 인상받은 부분은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성장하고 한 명이 죽을 때까지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설명하며 죽음, 헤어짐에 대한 이슈를 드러내었다. 좋아하는 격언은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는 말로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ioce라고 말하며 선택을 할 때는 ‘후회 없이 선택하자, 자신감 있게 하자’ 그렇게 결심한다고 했다. 처음 초기 기억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빠의 사업 실패 후 엄마가 집을 나간 사건, 두 번째 기억은 학교 다녀오면 신나게 병아리를 사왔지만 며칠 안 가서 죽었던 기억, 마지막으로 고모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었던 즐거웠던 기억을 언급하였다.

참여자6은 진로 패턴 및 인생의 상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요약하자면 “헤어짐, 죽음,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로 여겨진다. 즉 갑자기 집을 나간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이별이 죽음 또는 갑작스러운 헤어짐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고모 가족 모두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챙기신 할머니나 새벽 3시에 기상한 후 산에 가서 책 한 권

을 읽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교수님처럼 참여자6도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행동하며 지내왔고 그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전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며 혼자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고조된 상태로 진로 상담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담 이후 미래 진로 자서전과 생애 초상화 작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배우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난 상태로 내러티브가 변하였다. 또한 직업적으로도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등의 확신 있는 태도로 내러티브가 변하였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 고정관념이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의지하자는다.

변화를 보이지 않은 내담자의 특징

정체. 참여자4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 상담 전후의 단어 수라는 양적인 변화만 볼 때 단어 수는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을 살펴보면, 롤모델에 대해 아인슈타인,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를 언급하며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을 언급하지 못하다가 마음을 다스리는 잡지들 또는 오늘의 유머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꾸뻰씨의 행복여행’ 격언을 묻는 질문에서 “놀 땐 놀고 할 땐 하라”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참여자4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면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해 답변은 하지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특히 꾸뻰씨의 행복 여행이란 책의 내용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참여자4는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참여자4가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억압적인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예상된다. 초기 기억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놀랐고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고 나중에 집에 오셔서 만나게 되었는데 친척 집에 방문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억이었다. 두 번째는 웅변학원을 마치고 나서 동생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어머니를 찾아 뛰어갔던 기억, 세 번째는 “외할머니 방문하신 날 동생과 싸우다가 어항을 깨뜨려 두려움에 떨었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그나마.”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기억을 제외하고 첫 번째 기억과 마지막 기억은 문제가 발생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건들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으로 여겨진다. 참여자4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

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또는 외부 대상에 의지하는 대처 행동을 보여왔을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사전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 변화가 없는 '정체'에 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생애 초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참여자4는 변해가는 업무 환경 속에서 자기 계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출산이 임박해 오는 가정 상황에서 자신이 과거처럼 자기 계발로 시간을 사용할 경우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불안함이 많은 상태로 여겨진다. 이러한 불안감을 제공하는 아내를 동시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계에 대한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참여자4에게 핵심감정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현재 이러한 압박감은 생애 초상화의 내러티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이 진로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관계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아내를 믿고 나에게 좀 더 충실하자 이다.

IV. 논의 및 결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진로 전환에 놓인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전환에 놓인 성인을 위한 내러티브를 활용한 진로상

담을 적용해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진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여섯 명의 국내 게임 개발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하여 2회기의 생애 설계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의 효과 여부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상담 전후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섯명의 참가자에게서 변화가 관찰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섯 명의 참여자 중 변화를 나타낸 다섯 명의 참여자들은 회미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화,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무시하던 것에서 방향성 있는 것으로의 변화, 일반적인 흥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에 각각 해당하였으며, 한 명의 참가자는 변화가 없는 '정체'에 해당하였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83.3%($n=5$)가 변화를 보인 것인데, 이는 Rehfuß 등(2011)의 결과($n=15$, 83%) 및 Rehfuß와 Di Fabio(2012)의 결과($n=34$, 85%)와 유사한 결과이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Rehfuß와 Di Fabio(2012)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탐색의 변화를 보인 참가자 중 41.9%에 해당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수가 적은 탓으로 인해 세부 항목의 변화율까지 일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유사한 변화율을 보인 바, 국내 진로 전환기 성인들을 대상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생애 설계 상담의 적용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게다가 본 연구와 동일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우경, 유현실

(2018)의 연구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을 볼 때, 성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현재 국내 구조화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미미한 상태이다. 국내 검색 엔진인 DBpia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진로상담 프로그램 연구를 검색해 보면, 유우경, 유현실(2018) 연구가 유일할 뿐이다. 사실 진로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인데, 이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 진로연구는 주로 진로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28.2%)을 차지하고 있고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낮은 순위(10.2%)를 차지하고 있다(손승연, 이종연, 2017).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내 진로 상담 분야는 성인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도입 및 이에 대한 국내 효과성 타당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효과성 비교 연구가 가능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사전 미래 진로 자서전(FCA)과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의 내러티브가 상담 이후에 더 구체적,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이는 내러티브 이론(White & Epston, 1990; Rehfuss, 2009에서 재인용)에서 사람들의 단어 나 이야기가 변한 것은 곧 삶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이 진로

전환기에 놓인 성인들에게 효과가 있는 진로 상담임이 증명된 증거로 보여진다. 최근 국내 연구 중 본 연구와 동일한 Savickas의 진로 구성상담을 7명의 참여자들에게 적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 구성상담 이후, 내담자들이 자기 자원을 발견하고 부족한 면을 보게 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유우경, 유현실,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회미했던 것에서 초점을 맞추거나 무시했던 것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Savickas(2015)는 상담 변화 과정 중 '해체' 과정으로 본다. 기존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홀랜드 적성탐색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한 진로 상담은 상담자에게 단순히 개인의 개성과 자기 이해의 일반적인 개요만을 제공할 뿐 개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Taber et al., 2011)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의 부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의 효과가 확인 된 바, 향후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점은 2회기라는 짧은 회기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모든 단기 상담이 그렇듯 상담의 종결은 항상 잠정적인 것이고 완전한 종결을 가정하지 않으며 완전한 변화나 완전한 학습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인지적 변화의 수준도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상담의 효과에 대한 준거를 '자기 이해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유현실,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지적 수준의 변화들은 상담의 효과인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행동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고 효과의 지속성 또한 확인하지 못한바,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과 같이 내러티브에 초점을 둔 구성주의 진로 상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국내에서도 지지 되었다. Rehfsuss와 Di Fabio(2012)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단기 상담의 효과도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Whitson(2001)은 진로상담의 성과를 진로 지식과 기술(career knowledge & skills), 진로 행동(career behavior), 진로 관련 정서와 신념(sentiments & beliefs), 효과적인 역할 수행(effective role functioning)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 기초할 때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정서와 신념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에 가까워 보인다. 상담 성과 중, 구체적인 지식이나 행동보다 내적 정서나 신념이 더 안정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 상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서나 신념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소수이긴 하나 다섯 명의 내담자들의 변화 양상은 진로 정체감 지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섯 명의 내담자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Marcia(1966)의 정체감 지위 모형에서 상징하고 있는 몰입 차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Marcia(1966)는 진로 정체감의 발달이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이라는 두 개의

과정적 차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중 탐색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흥미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며, 반면 몰입(commitment)은 특정한 정체성과 자신을 통일시하면서 그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탐색보다는 몰입의 과정에 가까워보인다. 즉 이미 최초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진로 전환을 고민하는 시기의 성인들에게 상담의 효과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몰두할 수 있는 동기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확보에 제한이 있어 소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 더 많은 샘플, 통제집단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변화의 유무에 있어서도 인지적 변화를 넘어 행동인 수준의 변화 유무, 지속성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 설계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자의 훈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유현실, 김창대(2011)는 진로 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을 제안하며 진로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진로 상담자의 전문성은 진로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진로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hfuß, Cosio와 Del Corso(2011)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의 훈련을 받고 이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으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유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습과 임상 기술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상담자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임상 실습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질적 변화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질적 변화뿐 아니라 단어 수의 변화와 같은 양적인 변화도 확인하였다(Rehfuß & Di Fabio, 2012). 단어 수의 변화와 같은 양적 변화 역시 내러티브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Rehfuß & Di Fabio, 2012), 추후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려 양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상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담 효과의 상대적 효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현재 기존 진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홀랜드 적성검사’의 실시와 해석이라는 2회기 진로 상담과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 상담의 비교연구를 시행해본다면, 국내 상황에서 어떤 진로 상담이 더 유용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과 같이 다양한

발달적 단계의 대상에 대한 비교연구 또한 상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홍월, 남상인, 손은령 (2013).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논문 운영현황 분석: 2010-2012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175-2193.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n. d.). 워크넷. <http://www.work.go.kr>에서 2019년 3월 1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2015). 직종별 이직인원 및 이직률.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C40206에서 2019년 3월 28일 인출
- 김향란, 유승래, 손은령 (2017). 진로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 - 2000년~2016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진로교육연구, 30(3), 173-191.
- 손승연, 이종연 (2017).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 상담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주요 상담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8(3), 149-170.
- 안창규 (1996). 진로탐색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169-199.
- 유우경, 유현실 (2018). 진로 구성 상담에 참여한 성인 내담자의 변화 과정. 상담학연구, 19(5), 273-295.
- 유현실 (2009). 진로상담: 진로상담의 성과준거

- 에 관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0(4), 2187-2206.
- 유현실, 김창대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12(2), 241-268.
- 심현정 (2017. 4. 14). 직장인 75% “상반기 이직 생각”... 경력 채용 큰 場 선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4/14/2017041400071.html에서 2018년 6월 10일 인출
- 이상희, 정지후 (2015).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의 비교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143-165.
- 정문희 (2016).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를 활용한 대학생의 내러티브 진로 상담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 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0(4), 2009-2113.
- 최윤정, 이지은 (2014). 진로 개입 성과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상담학 연구, 15(1), 321-341.
- 탁진국, 이은혜, 임그린, 정일진 (2013). 성인경력고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1), 27-45.
- Cardoso, P., Gonçalves, M. M., Duarte, M. E., Silva, J. R., & Alves, D. (2016). Life design counseling outcome and process: A case study with an adolesc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58-66.
- Cardoso, P., & Sales, C. M. (2019). Individualized career counseling outcome assessment: A case study using the personal questionnai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7, 21-3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8). Stories to live by: Narrative understandings of school reform. *Curriculum inquiry*, 28(2), 149-164.
- Cochran, L. R. (1990). Narrative as a paradigm for career research. In R. A. Young & W. A. Borgen (Eds.),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areer* (pp. 71-86). New York: Praeger.
- Cochran, L. R. (1997). *Career counseling: A narra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Del Corso, J., & Rehfsuss, M. C. (2011). The role of narrativ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34-339.
- Di Fabio, A., & Maree, J. G. (2012). Group-based life design counseling in an Italian contex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1), 100-107.
- Di Fabio, A. (2016). Life design and career counseling innovative outcom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4(1), 35-48.
- Di Fabio, A., Maree, J. G., & Kenny, M. E. (2018). Development of the life project reflexivity scale: A new career intervent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 Gysbers, N. C. (2006). Using qualitative career assessments in career counselling with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6(2), 95-108.
- Maree, J. G. (2015). Career construction counseling: A thematic analysis of outcomes for four cli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86, 1-9.
- Maree, J. G. (2016). Career construction counseling with a mid career Black ma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4(1), 20-34.
- Maree, J. G., & Twigge, A. (2016). Career and self-construction of emerging adults: The value of life designing. *Frontiers in psychology*, 11, 1-12.
- Michael Booz (2018. 3. 15). "These 3 Industries Have the Highest Talent Turnover Rates" *LinkedIn*. Retrived March, 28 2019, from <https://business.linkedin.com/talent-solutions/blog/trends-and-research/2018/the-3-industries-with-the-highest-turnover-rates>
- Obi, O. P. (2015). Constructionist career counse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An experimental evalu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215-219.
- Perdrix, S., Stauffer, S., Masdonati, J., Massoudi, K., & Rossier, J. (2012). Effectiveness of career counseling: A one-year follow-up.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565-578.
- Reh fuss, M. C. (2009). The future career autobiography: A narrative measure of career intervention effective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 82-90.
- Reh fuss, M. C., Corso, J. D., Galvin, K., & Wykes, S. (2011). Impact of the career style interview on individuals with career concer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4), 405-419.
- Rehuss, M. C., Cosio, S., & Del Corso, J. (2011). Counselors' perspectives on using the career style interview with cli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208-217.
- Reh fuss, M. C., & Di Fabio, A. (2012). Validating the future career autobiography as a measure of narrative chang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4), 452-462.
- Reh fuss, M. C. (2015) The future career autobiography. In M. McMahon & M. Watson(Eds.), *Career assessment: Qualitative approaches* (pp. 153-160). Sense Publishers. Rotterdam.
- Sarbin, T. R. (1986).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 Savickas, M. L. (1995a). Examining the personal meaning of inventoried interests during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88-201.
- Savickas, M. L. (1995b). Constructivist counseling for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4), 363-373.
- Savickas, M. L. (2001).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Dispositions, concerns, and narratives.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 A volume in honor of Samuel H. Osipow*, 295-320.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al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pp. 42-70). Hoboken, NJ: Wiley.
-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duarda, M. E., Guichard, J., Soresi, S., Esbroeck, R. V., van Vianen, A. E. M.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 Savickas, M. L. (2010). Life designing: framework and introduction. *Paper presented at 2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elbourne, Australia.*
- Savickas, M. L. (2011). *Career counsel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 13-19.
- Savickas, M. L. (2015). *Life-design counseling manual*. Mark L. Savickas.
- Savickas, M. L. (2016). Reflection and reflexivity during life-design interventions: Comments on career construction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7, 84-89.
- Storlie, C. A., Hilton, T. L., Duenyas, D., Archer, R., & Glavin, K. (2018). Career narratives of Africa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Insights for college counselor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1(1), 29-42.
- Taber, B., Hartung, P. J., Briddick, H., Briddick, W. C., & Reh fuss, M. C. (2011). Career Interview: A contextualized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3), 274-287.
- Whitson, S. C. (2001). Selecting career outcome assessments: An organizational schem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3), 215-228.

1 차원고접수 : 2019.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9. 05. 26.

최종게재결정 : 2019. 06. 19.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Life Design Counseling Through a Narrative Analysis for Employees in Career Transitions

Kim, Shin-Hee

Yang, Eun-Joo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constructive career counseling to adults who find themselves in a career-transition period. The life design counseling of Savickas (2011) is utilized 'Career Story Interviews(CSIs)' consisting of five question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ix adult workers who voluntarily applied for counseling. The counseling was conducted in two sessions. During the first session, they received counseling based on career story interviews. During the second session, they reconstruct life portraits based on the first session counseling.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 the participants wrote a future career autobiography (FCA), which is a type of narrative evaluation, before and after the CSIs. The study found that one of the six could be classified as in period of 'stagnation', while the remaining five showed narrative changes from general content to specific content. Finally, a new career counseling strategy using career story interviews(CSIs) for adults facing career transitions is discussed.

Keywords: Adult Career Transition, Adult Career Counseling, Career Construction Counseling, Career Story Interview, Future Career Autobiography

부록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career story Interview)

1. 자라면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3명을 말해주세요.
대략 취학 전에 존경했던 사람을 말씀해주세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고 영웅일 수도 있고 혹은 만화 주인공, 책 등에 등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잡지인가요? 어떤 점이 흥미로워서 구독하게 되었나요? 어떤 점이 끌려서인가요?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끌린 이유가 있나요?
(잡지가 없다면) 정기적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나요? (3개)
(TV 프로그램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있나요?
3.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이야기가 있나요? 저에게 그 스토리(줄거리)를 말해주세요.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나요?
4. 좋아하는 격언이나 인생 모토가 있나요?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들었으면 하는 격언이나 말이 있나요?)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말도 좋고 가족이나 선생님 또는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도 좋습니다.
5.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취학 전 어찌면 3~6살 정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사진을 본다고 가정하면, 어떤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나요? 3가지 사건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신문 기사나 영화 제목처럼 헤드라인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